

조선 使臣의 중국서적 수집활동과 그 현존자료에 대한 시론적 고찰*

An Exploratory Study on Book Collection of Joseon Missions to
Imperial China and its Existing Old Books

玉 泳 畵 (Ok, Youngjung)**

◁ 목 차 ▷

- | | |
|-------------------------------|------------------|
| 1. 緒 言 | 4. 수집된 서적의 현존자료 |
| 2. 고려, 조선전기 使臣의 서적수집
활동 | 5. 結 言
<참고문헌> |
| 3. 조선후기 燕行使의 서적수집 활동과
그 방식 | |

< 초 록 >

이 연구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지닌 사신의 수집서적을 통하여 동아시아 서적교류의 일면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주로 연행기록에 나타난 서적 求得方式을 우선 파악하여 그 의미를 알아보았다. 연행사가 서적을 구득하고 전파한 중국서적의 전체적인 흐름은 연행연구를 출판 독서문화사적으로 접근하는 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행문화의 출판문화적 접근에 필요한 사항으로 일부분이지만 실물자료로 남은 서적에 대하여 현존하는 자료를 몇 종 살펴보았다. 출판문화사와 서적교류사의 연구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전체에서 사상적인 영향력이 큰 영역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국가전체의 사상적인 수요가 무엇인지 등 사회사, 사상사 전체 차원에서 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행사의 서적구매 방식을 통해서 살펴본 바로는 17세기까지 조선사행단의 중국 내 개인 활동을 언급하던 것이 18세기 초반부터 조금씩 완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서적구매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많은 종류의 중국서적이 조선에 유입되었고 연행사는 지식의 전달자 또는 유포자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병화와 격동의 시간을 겪으면서 수입된 서적들은 갖가지 사연을 남기고 사라져가고 그나마 온전하게 남아서 그대로 전해지는 자료는 매우 드물게 되었다. 기록에 남아있는 서적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면 회귀서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성을 지니는 자료로서 새로운 의미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몇 종의 서적의 예를 들어 이를 살펴보았다.

要語: 사신, 연행사, 서적, 출판, 인쇄문화, 서적교류, 중국본, 문화교류

* 이 논문은 2014년 6월 28일-30일에 中國 北京 古宮博物院에서 개최된 “燕行使進紫禁城” 국제학술회의의 발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韓國學中央研究院 古文獻管理學專攻 教授(gabinja@aks.ac.kr)

접수일: 2015년 3월 2일 최초심사일: 2015년 3월 12일 심사완료일: 2015년 3월 24일

<ABSTRACT>

This study is for looking at the part of East Asia book trades through the book collection of Joseon missions to Imperial China who has many functions and roles. To do this, we first figured out the meaning of getting the actual books which has been shown from enbo record. The flow of Chinese publication which was spread by the book purchasement of Joseon missions to Imperial China can provide basic datas for approaching Joseon missions to Imperial China study in reading cultural way. To do this we looked up some books that has been existed since then because it is necessary for approaching Joseon missions to Imperial China culture in publicational way.

Through Joseon missions to Imperial China's forms of book trades, we can know that before 17th century, Joseon missions to Imperial China couldn't do something personally. But we can know that it slowly deregulated in 18th century and it has been revealed through book purchasement.

It looks like many kinds of Chinese books had come into Joseon, and Joseon missions to Imperial China had conducted this job well by the form of the giver of knowledge. However, time has gone and with all the warfares and commotions, the books those have been imported have disappeared with many different reasons. The books that are reported whole are not that many. If we are able to check the books that are recorded, we will be able to give them knew meanings of having values of both purchase and historicity.

Key words: Joseon missions to Imperial China, Chinese old books,
book collection, book purchasement, printing culture

<中文抄錄>

朝鮮赴京使臣與中國學者以書籍為媒介的文化交流對當時文學·歷史·藝術方面有很大的影響。筆者認為朝鮮赴京使臣所購買或者收集的古籍占韓國藏中國本古籍的相當大的一部分。但是，目前對於現存朝鮮赴京使臣所購買或者收集的古籍的文獻學研究仍然處於起步階段，相關研究成果罕見。

本文考察了燕行文獻中所見的朝鮮使者赴京與中國學者以書籍為媒介的文化交流實況。本文探討的內容可以對出版、讀書文化史的視角來研究燕行文獻提供基礎資料。

朝鮮赴京使者收集或購買中國本古籍的活動在中朝學術、文化交流領域上起“傳播知識”的重要作用。可惜的是，目前對於現存朝鮮赴京使臣所購買或者收集的古籍的文獻學研究仍然處於起步階段，相關研究成果罕見，不能歸納這些書的整體面貌。筆者認為朝鮮赴京使臣所購買或者收集的古籍占韓國藏中國本古籍的相當大的一部分，我們需要對這些古籍進行整理工作。

要語：赴京使臣，域外漢籍，燕行使，印刷文化，書籍交流，中國本，文化交流

1. 緒 言

필자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미국 UC Berkly의 방문학자로 1년간 머무르면서 동아시아도서관에 소장된 다양한 고문헌을 열람하는 혜택을 누렸다. 방문기간 중에 도서관에서 진행된 여러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는데 10월 중순에 臺灣古宮博物院에서 동아시아도서관에 기증한 影印本 『宋槧注東坡先生詩』라는 책은 매우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 책은 송나라 吳興의 施元之와 吳郡의 顧禧가 蘇軾의 詩에 注를 단 것으로 吳興의 傅穉가 歐陽詢의 필법에 따라 쓰고 판각하여 嘉泰 2年(1202)에 간행한 책이며 청나라 翁方綱(1733-1818)이 소장했던 책이다.

특히 이 책은 연행사로 북경에 가서 翁方綱을 만났던 조선의 申緯(1769-1845)가 쓴 발문도 남아있었다. 조선시대 인물이 宋本을 직접 본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기도 하거니와 그 과정이 당시의 학술교류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웠다.

옹방강이 소장했던 『宋槧注東坡先生詩』에 대하여 언급한 藤塚鄰의 연구에 따르면¹⁾ 이 책은 명나라 말기에 錫山의 安氏와 常熟의 毛氏(汲古閣)에게 전해진 뒤 淸 康熙年間에 商邱사람 宋犖이 소장한 것이라 하였다. 그 뒤에 乾隆 38년(1773)에 옹방강이 소장하게 되고 그는 소동파의 탄신일에 『天際烏雲帖』²⁾과

1) 藤塚鄰 著, 朴熙英 譯, 『秋史 金正喜 또다른 얼굴』(아카데미하우스, 1994), 111-112. 『宋槧注東坡先生詩』에 대해서는 이 책을 중점적으로 다룬 衣若芬의 최근연구(衣若芬, “敬觀眞賞: 翁方綱舊藏本《施顧註東坡詩》研究,” 『清華中文學報』 第11期(2014. 6), 57-102)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 『天際烏雲帖』은 송 蘇軾이 錢塘에서 蔡襄의 <夢中詩> 목적을 보고 감흥 받아 종이에 붓으로 써내려 간 첩자이다. 소식 진적본 『천제오운첩』은 후대에 많은 소장가와 학자들이 제발 시문을 거친 후에 청 翁方綱의 石墨書樓에 들어갔다. 옹방강은 이 첩자를 얻고 주변 인사와 문인들과 여러 차례나 감상하는 행사를 펼쳤고, 또 그 자신도 오랫동안 이 첩을 고증하여 『天際烏雲帖攷』라는 글을 쓰기도 하였다. 조선 예단에서는 일찍이 후대 모사본 『천제오운첩』이 들어와서 서예가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金正喜가 옹방강의 石墨書樓를 방문하여 蘇軾의 『천제오운첩』을 처음 감상한 이후로, 이 연분이 申緯로 이어졌다. 그 후 신위는 여러 시문에서 이때 받은 감흥을 계속 거론했고, 또 옹씨 집안으로부터 옹방강이 모사한 『천제오운첩』을 전해 받기도 하였다. 훗날 신위는 옹방강 모사본을 조선 헌종에게

이 책을 동과상 앞에 놓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신위는 김정희의 소개로 이 책을 열람할 수 있었으며 옹방강이 이 책을 보여주고 발문을 청하자 짧게 글귀를 남긴 것이다.

이 책은 담계 옹방강의 사후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다. 책에 날인된 장서인만 하여도 수십방에 이르는데 葉志詒, 葉名灃, 吳榮光, 潘仕成, 鄧氏, 洪志東, 袁思亮 등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불행히도 袁思亮 집의 화재로 일부만 남아있는데 옹방강이 길게 쓴 제기를 비롯해서 乾隆과 嘉慶시대 여러 명사들의 款識와 跋文이 남아있다. 閔貞, 華秋岳, 朱畦雲 등이 그린 蘇軾 초상, 옹방강의 40세 초상, 顧南雅의 金泥梅畫 何子貞의 七言古詩, 東坡生日圖, 東坡 消寒圖 등이 있었다. 송나라 시대에 간행한 책이 청대의 학인을 거쳐 머나먼 나라에 까지 알려지게 되는 과정이 마치 학인들의 교류가 다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신위가 송본 『송침주동과선생시』를 보았듯이 수많은 연행사가 중국여행에서 보거나 구입해간 서적은 어떤 상태로 남아있는지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조선사람 신위는 燕行使로서 書狀官이었다. 당시 조선과 청나라간의 학술교유는 매우 활발했고 이는 대부분 북경에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진행된 사행이나 임시사행에서 이루어졌다. 정기사행은 正朝, 年貢, 皇曆齋咨行이었다. 삼절행은 冬至를 즈음해서 보내는 冬至使, 新年祝賀使節인 正朝使, 황제와 황후의 생일을 축하하는 聖節使를 의미하며, 年貢行은 1년마다 바치는 공물의 사행인데 청나라고 북경으로 수도를 옮긴 이듬해인 1645년 이후부터는 正朝, 冬至, 年貢의 세가지 사행과 함께 성절사를 합쳐서 정월 초하루에 맞추어 가도록 하였고 여기에는 正使, 副使, 書狀官 3원은 반드시 갖추도록 하였다.³⁾ 중국의 책력을 받아오는 황력제자행은 1660년 이후부터 사냥매를 바치던 進應製가 폐지되면서 별도로 시행된 것으로 음력 11월에 출발하여 4월에 돌아오는 삼절연공행

진상하였다(박현규, “清 翁方綱 所藏 蘇軾 『天際烏雲帖』과 朝鮮 申緯의 結緣,” 『韓中人文學研究』 12卷(2004)).

3) 『증보문헌비고』 권175 교빙고 5.

과 달리 음력 8월에 출발하여 10월에 북경에 도착하고 청나라의 책력인 時憲曆을 받아왔다. 황력재자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삼절연공행 연행사와 보통 압록강 건너 책문 근처에서 만나 서로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다. 신위는 1812년에 임시사행인 奏請使⁴⁾의 書狀官 자격으로 북경을 방문하였으며 그 당시 조선과 청나라간의 학술교류에 역할을 담당하였다.

필자는 이 당시 연행사들과 청나라 학인의 교류는 많은 문학, 역사, 예술 등 지성사 변화의 중심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 주요한 매개체는 당시의 書籍이었으며 현재 한국에 남아 있는 수많은 중국 고서 중에는 연행사절에 의해서 구입되고 수증된 것이 상당부분 남아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연행사와 관련된 연구에서 실물로 남은 서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실물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드물다. 이 글에서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은 연행사의 서적구매가 실제로 이루어진 방식과 실제로 입수된 책에 관한 것이다. 이는 연행기록에서 살필 수 있는 많은 내용 중에서 서적의 입수와 그 방식에 관한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다른 연구분야에 비해서 비교적 그 연구가 덜 된 분야이기도 하다.⁵⁾

4) 국가 중대사에 대하여 중국황제에게 上奏하거나 請援하기 위하여 보낸 奏請使.

5) 최근 들어 연행록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각 시기와 주제별로 연행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1976년에 간행된 한국고전번역원의 『燕行錄選集』을 비롯하여 임기중 교수가 주도하여 2001년부터 발간이 시작된 『연행록 전집』 100권, 2004년의 『연행록해제』 1~2집, 2008년의 속집 50권, 그리고 정본화 작업을 거쳐 연행록으로서 연구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간추린 영인본 『燕行錄叢刊』을 펴내는 작업이 있었다. 또한 주제별 연행연구 중 서적교류분야의 기초자료로 2014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편찬한 『18世紀 燕行錄 記事集成 - 書籍 書畫篇 -』도 서적 서화분야의 교류사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서적교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한문학분야에서 김영진, 부유섭, 신익철, 정민 등의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김영진은 연행을 통한 장서가와 서책의 규모 등을 소개하였고, 부유섭은 17세기후반부터 18세기초 사이에 유입된 서책의 내용과 유형을 “연행록을 통해본 강릉 년간 중국서적 유입에 대하여,” 『漢文學報』 22집(2010. 6)에서 다루었으며, 신익철은 “燕行錄을 통해본 18세기 전반 韓中 書籍交流의 양상,” 『泰東古典研究』 25집(2009)에서 18세기 전반 북경의 천주당과 서반을 통해 구매되는 서적의 현황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연행사의 서적구매가 많이 이루어졌던 유리창 서점가에 대해서는 정민의 “연행기록을 통해본 18-19세기 북경 유리창 서점가,” 『동아시아문화연구』 50집(2011. 11)에서 매우 자세히 다루고 있다.

2. 고려, 조선전기 使臣의 서적수집 활동

동아시아 문물교류사에서 서적의 교류는 곧 지식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동아시아 출판문화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인적 교류를 포함해서 서적을 통한 지식의 교류가 동아시아 전체 역사에서 상호 이해의 중요한 매개물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특히 중국 宋, 元時代는 발달된 인쇄문화를 바탕으로 서적유통의 황금기를 이루었고 명대 후반에는 간행된 서적의 종류가 다양했고 규모도 매우 컸다. 고려는 사신이나 무역 등의 교역을 통하여 각종 주제의 서적들을 수입하였고, 송나라의 경우에는 이본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에 자국의 전란으로 인해 일실되었던 서적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원대에도 고려와 사경승의 왕래로 불경이나 史書 등의 서적이 유통되었다. 이러한 서적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양국의 기록문화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러나 명나라 초기에는 명의 海禁政策으로 서적교류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었다.

明, 淸時代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시기에도 한중간의 서적교류는 매우 빈번하였지만 연행사들의 기록인 연행일기가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조선후기에 비하여 고려, 조선전기의 기록은 매우 드물다. 그나마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에는 이와 같은 양국의 서적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사신들의 구체적인 서적구매 방법이나 활동상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비록 소략하지만 서적교류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불경 이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

비교적 자주 보이는 기록은 주로 원대 이후의 내용이다. 고려의 國史와 원의 曆書 교류와 관련된 것으로 國史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忠烈王 4년(1278) 7월에 中書省에서 고려의 累朝 事跡 및 臣服·日月, 元의 황제 登極 이래 사신의 名目, 國王의 親朝 年月을 모두 기록하여 바치게 하였다.⁷⁾ 또 충렬왕 12년(1286)

6) 이 기록은 필자의 기존 발표문 「원간본의 조선간행과 유통」(東亞世亞出版文化研究 國際學術會議, 2009.10), 87-90.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7) 『高麗史』세가 제28, 충렬왕 4년(1278) 7월 정해조. “中書省令 具錄本國累朝事跡及臣服日月 與帝登極已來使介名目 國王親朝年月以呈 因國史院報也.”

11월에는 直史館 吳良遇로 하여금 元에 보낼 國史를 편찬하게 하였고,⁸⁾ 충렬왕 21년(1295) 10월에는 왕이 任翊과 金甦이 命撰한 元 世祖皇帝의 사적을 원에 보내기도 하였다.⁹⁾ 충렬왕 33년(1307) 11월에는 전왕의 명령으로 直史館 尹頌로 하여금 先代의 실록 185책을 원나라로 보내었다. 이때는 조종에서는 ‘조종의 실록을 다른 나라에 반출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반대하기도 하였다.¹⁰⁾ 이후 忠宣王 즉위년(1308)에도 賀正 사신 趙璉을 통해 世代編年節要와 金鏡錄을 보냈다.¹¹⁾ 원에서 주체가 된 求書 사례로 충혜왕 4년(1343)에 直省舍人 實德을 보내어 宋, 遼, 金 삼국의 史蹟을 구해왔다.¹²⁾

국사와 관련된 기록은 특히 국가의 안보와 관련되므로 發願을 목적으로 하는 불경과는 달리 민감한 문제였으며, 이로 인해 충렬왕 33년(1307)의 경우처럼 고려 조정에서 공론이 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에서는 고려의 국사는 물론 원대 이전 중국 왕조인 송·요·금의 국사까지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 세조의 사적까지 편찬해 보내도록 하였다.

책력의 반포는 봉건체제에서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매우 실질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제도였다. 따라서 원 또한 고려에 대하여 꾸준히 책력을 반포하였을 것이지만 그 기록은 일정하지 않다. 元宗 5년(1264) 2월에 韓就가 몽골에서 돌아 오면서 황제로부터 中通曆을 하사받아 온 것이 초기의 기록이며,¹³⁾ 이후로 원종 9년(1268),¹⁴⁾ 충렬왕 2년(1276),¹⁵⁾ 충렬왕 7년(1281),¹⁶⁾ 충렬왕 22년(1296)¹⁷⁾에

8) 『高麗史』 세가 제29, 충렬왕 12년(1286) 11월 정축조. “命直史館吳良遇等撰國史 將以進于元也.”

9) 『高麗史』 세가 제31, 충렬왕 21년(1295) 10월 임술조. “遣將軍柳溫如元 進先帝事跡.”

10) 『高麗史』 세가 제32, 충렬왕 33년(1307) 11월 병술조. “遣都僉議贊成事李混如元賀正 以前王命遣直史館尹頌奉先代實錄一百八十五冊如元 時人皆不可曰 祖宗實錄不宜出之他國.”

11) 『高麗史』 세가 제33, 충선왕 1년 12월 무오조. “遣評理趙璉如元賀正以王命齎世代編年節要并金鏡錄以進.”

12) 『高麗史』 세가 제36, 충혜왕 4년(1343) 5월 임오조. “元遣直省舍人實德 來索宋·遼·金三國事蹟.”

13) 『高麗史』 세가 제26, 원종 5년(1264) 2월 병인조. “韓就還自蒙古 帝賜西錦一段 曆日一本.”

14) 『高麗史』 세가 제26, 원종 9년(1268) 2월 임인조. “安慶公涖還自蒙古 賜王西錦一匹·曆日一道.”

15) 『高麗史』 충렬왕 2년 1월 정축조. “元遣別古里 來頒曆 詔曰 四時不忒 推鳳曆以紀年 萬國

원으로부터 책력을 하사받았다.

麗末鮮初에 주자성리학이 수용되면서 자연스럽게 원나라에서 간행된 성리학 관련 서적이 수입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유입된 원간본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고, 현재 남아 있는 원간본과 원판 翻刻本을 통해 그 자취를 찾을 수 있다. 그나마 기록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高麗史』의 기록으로 다음과 같다.

고려 충숙왕 원년에 황제가 왕을 원나라 서울에 체류할 것을 승인하였으므로 왕이 연경에 萬卷堂을 세워 고급의 珍書를 수집하고, 고려의 李齊賢, 朴忠佐를 불러들여 원나라의 閻復, 姚燧, 趙孟頫, 虞集 등과 교류하면서 중국의 고전과 성리학을 연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⁸⁾ 이 기록은 직접적인 서적 유입의 사례로 보기 어렵지만 충선왕의 장서와 원나라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원나라의 서적이 고려로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공민왕 13년(1364)에 明州司徒 方國珍이 照磨와 胡若海를 고려에 파견하였는데, 이때 田祿生과 함께 와서 沈香과 활, 화살 그리고 『玉海』와 『通志』 등의 서적을 바쳤다.¹⁹⁾ 『玉海』와 『通志』는 그 원간본으로 알려진 판본이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현전하고 있다. 다만 기록에 전하는 책과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 외에 원간본은 아니나 宋刊本을 대량으로 고려에 보내온 사례도 보인다. 고려 충숙왕 원년(1314) 6월에는 당초에 成均館提學司에서 박사 柳衍과 學諭 俞迪을 중국 江南에 보내어 서적을 구매해 오게 하였는데, 도착하지 못하고 배가 난파당하여 유연 등이 맨몸으로 해안에 상륙하였다. 그러자 判典校寺事 洪淪이

攷同 矧雞林之受朔 若稽舊典 用布大和 今賜至元十三年曆日一本 卿其敬授 農時益遵田正籍 爾蕃宜之力贊于平秩之功 率勤南畝之民 罔知遊惰 爰俾東陲之俗丕變 雍熙庶績其凝 朕言無替.”

- 16) 『高麗史』 충렬왕 7년 1월 무술조. “春正月戊戌朔 元遣王通等 頒新成授時曆及許衡郭守敬所撰也.”
- 17) 『高麗史』 세가 제31, 충렬왕 22년(1296) 3월 기묘조. “金光就還自元 帝賜王織金段·紅絹各四匹 太后賜蒲萄酒二器 並賜曆日.”
- 18) 『高麗史』 世家 제34, 忠宣王 5년(1313) 3월 갑인조.
- 19) 『高麗史』 세가 제40, 공민왕 13년(1364) 6월 을묘조. “明州司徒方國珍遣照磨胡若海 偕田祿生來 獻沈香·弓矢及玉海·通志等書.”

太子府參軍으로 南京에 있다가 유연에게 寶鈔 150錠을 주어 경적 1만 800권을 구매하여 돌아가게 하였다. 또한 같은 해 7월에는 元의 前朝인 宋의 秘閣에 수장된 서적 4,301冊을 포함하여 총 1만 7천 권을 하사하였는데, 洪淪의 주청에 의한 것이었다. 이는 전후 시기를 통틀어 중국 왕조에서 하사한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송간본의 한반도 유통에도 크게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²⁰⁾ 그러나 이들 전적은 공민왕 10년(1361) 홍건적의 난으로 대부분의 책이 일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적의 교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 중에 조선후기의 실학자 중 한 사람인 韓致齋(1765-1814)의 『海東繹史』(卷42. 藝文志1 經籍條)의 총론에는 조선초기 중국에서 頒賜한 서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서 일부분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

建文 3년(1401, 태종 1)에 『文獻通考』를 하사하였다. 이는 당시 성절사였던 趙溫(1347-1417)이 가지고 왔다.

永樂 元年(1403, 태종 3)에 『元史』, 『十八史略』, 『山堂考索』, 『諸臣奏議』, 『大學衍義』, 『春秋會通』, 『眞西山讀書記』, 朱子가 지은 서책 각 1부씩을 하사하고, 1404년에 『古今列女傳』을 하사하였으며, 1406년에 『通鑑綱目』, 『四書衍義』, 『大學衍義』 등의 서책을 하사하였다. 이는 禮部에서 보내 주었다. 영락 6년(1408)에 孝慈高皇后의 傳書 50권을 하사하고, 이는 具宗이 가지고 왔다. 또한 예부에서 『勸善書』 300부를 하사하였다. 영락 15년(1417)에 『僞善蔭鷺』 600本을 하사하였는데 이는 李之崇이 가지고 왔다.

宣德 元年(1426, 세종 8)에 『五經』, 『四書』, 『性理大全』, 『通鑑綱目』 등의 서책을 하사하였다. 이는 金時遇가 가지고 왔다.

선덕 8년(1433, 세종 15)에 『五經大全』과 『四書大全』 각 1부씩을 하사하였는데 朴安信이 가지고 왔다.

正統 元年(1436, 세종 18)에 『胡三省音註通鑑』을 하사하였다. 이는 南智가 가

20) 『高麗史』 세가 제34, 충숙왕 원년(1314) 7월 갑인조. “元皇太后遣使 賜公主酒果 帝賜王書籍四千三百七十一冊 共計一萬七千卷 皆宋秘閣所藏 因洪淪之奏也.”

지고 왔는데 그 전에 북경으로 가는 南智에게 세종은 서적을 구하는데 대한 특별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그 내용은 『五經大全』과 『四書大全』은 자세히 물어 봐서 살 만하면 사도록 할 것이며, 胡三省이 음註한 『資治通鑑』과 趙完璧의 『源委』와 金履祥의 『通鑑前編』과 陳桎의 『歷代筆記』 등의 서적을 만약 황제께 주청해보고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理學과 관련된 책으로 『五經大全』과 『四書大全』, 『性理大全』의 심오한 이치를 남김없이 수록한 것이나, 史學과 관련된 책으로 後人이 撰述하면서 상고가 該博하고 본국에 없고 학자에게 이익되는 책이 있으면 이를 살 것이며, 『綱目』, 『書法』과 『國語』도 또한 사 가지고 올 것이며, 무릇 책을 살 적에는 반드시 두질을 사서 脫落한 것에 대비하게 하였다. 또한 북경에 만약 『大全』의 板本이 있으면, 종지와 먹을 준비하여 사사료이 인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아울러 물어 볼 것이며, 이미 찬술된 『永樂大全』의 간행여부와 함께 책속에 갖추어진 것도 또한 아울러 자세히 물어 볼 것도 지시하였다.²¹⁾

景泰 5년(1454, 단종 2)에 『宋史』를 하사하였다. 黃致身이 가지고 왔다. 책을 하사 받은 후에는 감사의 표시로 다시 사신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때 특산물 등을 선물로 보냈다.

正德 13년(1518, 중종 13)에 『大明會典』을 얻어 왔다. 萬曆 16년(1588, 선조 21)에 『대명회전』의 잘못된 곳을 개정한 全書를 하사하였다. 이는 俞泓이 가지고 왔다.

서적을 가지고 들어온 역할을 수행한 조선사신들이 趙溫,²²⁾ 具宗, 李之崇,²³⁾

21) 『世宗實錄』 69卷, 17年(1435 乙卯) 8月 24日. “... 太宗皇帝朝撰集四書五經大全等書久矣本國初不得聞, 逮至庚子 敬寧君赴京受賜 其後累蒙欽賜 披閱觀覽 詳悉精微 實無餘蘊 乃知朝廷所撰書史類此者應多 但未到本國耳 須細問以來 可買則買 今奏請胡三省 音註資治通鑑 趙完璧 源委 金履祥 通鑑前編 陳桎 歷代筆記 等書 若蒙欽賜 則不可私買 禮部如云御府所無 則亦不可顯求 理學則五經四書 性理大全 無餘蘊矣 史學則後人所撰 考之該博 故必過前人 如有本國所無有益學者 則買之 綱目 書法 國語, 亦可買來 凡買書 必買兩件 以備脫落 北京若有大全板本 則措辦紙墨可私印與否 并問之 曩者傳云: “已撰永樂大典 簡帙甚多 未即刊行” 今已刊行與否及書中所該 亦竝細問 ...”

22) 1401년 參贊議政府事로서 佐命功臣 4등에 책록되어 府院君에 진봉되고, 이 해 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金時遇, 朴安信, 南智,²⁴⁾ 黃致身,²⁵⁾ 俞泓²⁶⁾ 등의 인물로 주로 聖節使로 다녀왔다. 특히 俞泓(1524-1594)은 장서가로도 이름이 높았는데, 그의 伯父인 俞絳(1510-1570)이 명나라에 謝恩使로 갔을 때 수입한 서책에 대한 기록을 그의 후손인 俞晩柱(1755-1788)의 일기에서 찾을 수 있다.²⁷⁾

肅敏公 俞絳은 어려서 讀書하는데 곤궁하여, 늘 책을 빌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급제하여 귀하고 현달함에 미처서 책을 모으기로 결심하였다. 水路朝天하여 돌아올 때에 한배 가득 책을 구입하여 해로로 해서 이르렀으니 그 많음을 헤아려 볼 수 있다. 그 책을 鄉庄과 京第, 海陽山房에 나누어 저장하였다. 공은 읽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 묻지 않았다. 이러한 까닭으로 山房의 책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鄉庄과 京第에도 또한 거의 반이 散佚되어 지금 자손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쌓여 있으나 빠져있는 것이 많다. 또 한 질 가운데 산일되어 단지 한 두 권만이 남아 있는 것도 있다. 藏書目錄 4책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간간이 奇文異書의 이름이 많았다고 하였다.²⁸⁾ 凜이 『肅敏書目』 1책을 보여주었다. …(中略)… 밤에 비로소 凜이 보내온 書目を 보았다. 金·石·山·海·靜·遠·留·通·木 字로써 열여덟 冊에 나누었는데, 모두 2,874권으로 長淵의 妙陰寺에 보관한 것이다. 그 가운데는 『邵子全書』(15책)·『呂氏春秋』(4책)·『太玄』(2책)·『四書人物考』(6책) 등과 같은 것은 모두 尤庵이 빌려갔다는 내용의 注가 달려있다.²⁹⁾

-
- 23) 1409년 恩賜를 사려하고 흰 평[白雉]이 나타난 祥瑞를 하례하기 위해 原平君 尹穆과 함께 명나라에 다녀왔다.
- 24) 1435년 형조참판으로 성절사가 되어 명나라에 가서 서적을 내려줄 것을 청하여 『音註資治通鑑』 1질을 받아왔다.
- 25) 1454년 중추원사에 임명되었고 賀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 26) 1587년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그동안 조선의 시조가 고려의 권신 李仁任의 아들로 잘못 된 것을 바로잡았다.
- 27) 김지연, “『欽英』에 나타난 俞晩柱의 독서생활과 서지학적 성과,”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28) 俞晩柱, 『欽英』(1786.1.16 / 6-131). “肅敏尙書少窮 讀書 每艱於借書 及登第貴顯 決意畜書 水路朝天 而回還時 購書一舟 泛海而至 其多可推也 分貯鄉庄京第 又別貯于海陽山房 公諸能讀者 不問其取去 以故山房之書 無一存 庄第所貯 亦強半散佚 今子孫所守者 多疊有多虛錄 亦有通一帙散佚 而止餘一二卷者 藏書目錄四冊尙存 而間多奇文異書之名云.”
- 29) 俞晩柱, 『欽英』(1786.1.18 / 6-132). “凜示『肅敏書目』一冊 … 夜始閱凜寄書目 以金石山海靜遠留通等字分十八橫 凡二千八百七十四卷 貯長淵妙陰寺者也 其中如『邵子全書』(十五冊)『呂氏春秋』(四冊)『太玄』(二冊)『四書人物考』(六冊) 皆注尤菴借.”

즉 유만주의 선조인 숙민공 유강이 朝天을 다녀오는 길에 책을 구입해 와서 鄕庄, 京第, 海陽山房에 나누어 저장하고 누구나 빌려가도록 하였고 그의 장서목록 『肅敏書目』은 4책이 있었는데 그 중 1책을 살펴보니 모두 2,874권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연행사의 서적 수입과 중국본 장서에 관한 기록으로 매우 의미있는 기록이다.

3. 조선후기 燕行使의 서적수집 활동과 그 방식

조선후기 중국 사행단은 1년에 한차례 이상 4차례까지도 파견되었고, 그 규모도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에 이르렀다. 서책의 구입은 正使, 副使, 書狀官의 三使를 비롯하여 이들의 수행원, 역관 등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졌다. 중국 명나라 말기에 姜紹書는 그의 韻石齋筆談³⁰⁾에서

조선 사람들은 책을 매우 좋아한다. 사신자격으로 오는 사람을 50, 60인으로 한정하였는데, 옛 典籍이나 새 책, 稗官小說 등 조선에 없는 것들을 날마다 시장에 나가 각각 서목을 베껴 들고 만나는 사람마다 두루 물어보고 비싼 값을 아끼지 않고 구입해간다. 그래서 조선에 도리어 기이한 책이 많이 소장되어 있다.³¹⁾

라고 기록하여 당시에 중국 연행사의 서적구매에 대한 열기를 묘사하기도 하였다. 특히 청대 초기 조선사행단의 중국 내 개인 활동을 엄금하던 것이 18세기 중엽부터 상당히 완화됨으로써 서적을 매개로 하여 중국 지식인과의 교제 및 서책 구입이 보다 원활해졌다. 17-18세기 중국 사행에서의 서책구입 중 대규모로 수입한 경우는 許筠(1569-1618)이 1614년과 1615년에 중국에 가서 4,000여 권을 사온 것과 1678년 陳慰 兼 進香使로 간 李夏鎭(1628-1682)이 수천 권의 서적

30) 姜紹書의 저술로 상하권으로 구성되었다. 周密이 지은 雲煙過眼錄을 모방하여 자신이 본 書畫와 器玩에 대해 모양과 傳受한 始末을 기술하였다.

31) 姜紹書, 『韻石齋筆談』 卷上.

을 구입한 사례, 李宜顯(1669-1754)이 1720년에 53종 1,416권을 구입한 사례가 있다.³²⁾

연행사의 수집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기록은 연행일기 형태로 남은 연행사의 기록이다. 이는 서적 수집과 열람의 기록 실제 서적의 예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연행일기 중에 그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서적의 구입 절차와 방식

서적의 구입방식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李宜顯(1669-1754)의 1720년과 1732년 연행기록과 金昌業(1658-1721)의 『老稼齋燕行日記』가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다. 이의현은 1720년 경자년의 연행에서 서적을 구하는 방법을 적고 있는데 사신이 책을 사려고 하면 반드시 역관들을 시켜 序班에게 구하고, 이들은 상호간에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몹시 교분이 깊다고 하였다. 서반은 곧 提督府의 서리로 오래 되면 간혹 승진되어 知縣이 되기도 하는 사람으로 조선사람이 연행 중 사정을 알려고 하면 이 서반을 통해야 알 수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번번이 위조 문서를 만들어 많은 값을 받고서 역관들을 속이기도 하였으며, 그들의 집은 대개 南方에 있었다. 서책은 모두 남쪽으로부터 여기로 가져와서 이들이 매매를 담당하게 되는데, 마치 조선의에서 말하는 거간과 같은데 역관들이 또 그 중간에 끼어 있기도 하였다.³³⁾

1832년에서 1833년 사이에 冬至使 兼謝恩使 徐耕輔의 書狀官으로 중국에 다녀온 金景善(1788-1854)의 使行記錄에 의하면 서반은 곧 禮部의 流外屬官이

32) 김영진, “조선후기 중국 사행과 서책 문화,”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문화지형도』 (한양대학교출판부, 2006), 595-599.

33) 李宜顯, 『庚子燕行雜誌』 下, 庚子(肅宗 46, 1720). “... 序班即提督府書吏. 而久則間有陞爲知縣者. 我國人欲知燕中事情. 則因序班而求知. 輒作僞文書. 受重價而賺譯輩. 其家多是南方. 而書冊皆自南至. 此屬擔當買賣. 如我國所謂僧人. 而譯官居其間. 使臣欲購冊子. 必使譯輩求諸序班. 彼此互有所利. 故交結甚深.”

라 하였다. 사행이 북경에 들어가면, 예부로부터 本部의 서반 10인을 조정하여 보내 번갈아 아문에서 숙직하면서 諸官의 役使를 돌보게 했다. 그들은 外省에서 뽑아 온 사람이라 俸食이 매우 박하였다. 그리하여 북경 물건으로 조금 괜찮은 書籍, 圖畫, 香茶, 筆墨 같은 것을 장사치들 속에서 판매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런데 마음 놓고 의지할 데가 있어 이익을 독차지하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교활한 것을 괴롭게 여겨 간혹 몰래 물건을 사면, 바로 그들은 불끈 성내어 꾸짖고 움직이 기만 하면 반드시 따라다니며 살핀다고 한다.³⁴⁾

이의현이 경자년에 구입한 서적은 다음과 같다.

『庚子燕行雜識』	『冊府元龜』 301권, 『續文獻通考』 100권, 『圖書編』 78권, 『荊川稗編』 60권, 『三才圖會』 80권, 『通鑑直解』 24권, 『名山藏』 40권, 『楚辭』 8권, 『漢魏六朝百名家集』 60권, 『全唐詩』 120권, 『唐詩正聲』 6권, 『唐詩直解』 10권, 『唐詩選』 6권, 『說唐詩』 10권, 『錢註杜詩』 6권, 『瀛奎律髓』 10권, 『宋詩鈔』 32권, 『元詩選』 36권, 『明詩綜』 32권, 『古文覺斯』 8권, 『司馬溫公集』 24권, 『周濂溪集』 6권, 『歐陽公集』 15권, 『東坡詩集』 10권, 『秦淮海集』 6권, 『楊龜山集』 9권, 『朱韋齋集』 6권, 『張南軒集』 20권, 『陸放翁集』 60권, 『楊鐵厓集』 4권, 『何大復集』 8권, 『王弇州集』 30권, 『續集』 36권, 『徐文長集』 8권, 『抱經齋集』 6권, 『西湖志』 12권, 『盛京志』 6권, 『通州志』 8권, 『黃山志』 7권, 『山海經』 4권, 『四書人物考』 15권, 『黃眉故事』 10권, 『白眉故事』 6권, 『列朝詩集小傳』 10권, 『萬寶全書』 8권, 『福壽全書』 10권, 『發微通書』 10권, 『壯元策』 10권, 『彙草辨疑』 1권, 『製錦篇』 2권, 『艷異篇』 12권, 『國色天香』 10권, 『息庵集』, 『明史紀事本末』, 『塘報』, 『五倫書』
----------	---

이 중에서 雜書 몇 가지는 序班들이 사사로이 준 것이라 하였다. 서화로는 米元章書 1帖, 顏魯公書家廟碑 1件, 徐浩書三藏和尚碑 1건, 趙孟頫書張真人碑 1건, 董其昌書 1건, 神宗御畫 1簇, 西洋國畫 1족, 織文畫 1장, 菘菜畫 1장, 榻本한 北極寺庭碑 6건을 구했다.³⁵⁾

34) 金景善, 『燕轅直指』 卷二. “... 序班者 卽禮部流外屬官也 使行入京 自禮部調遣本部序班 十人 更番直宿于衙門 以備諸官役使 皆從外省選上 俸食甚貧 凡燕貨之稍雅 如書籍圖畫 香茶筆墨之屬 許其居間販買 俾有聊賴 而惟其利 我人苦其刁蹬 而或有潛買 則輒肆恚罵 動必跟伺云.”

35) 李宜顯, 『庚子燕行雜誌』 下, 庚子(肅宗 46, 1720). “... 所購冊子. 『冊府元龜』 三百一卷,

이의현은 1732년에도 사행하였으며 이 때의 기록인 『壬子燕行雜識』에는 39종의 서적을 수록하였다. 이 중에 20종은 부탁을 받거나 선물을 위하여 구매한 것이며 일일이 서적 주인의 이름을 기입하였다.

『壬子燕行雜識』	<p>『宋史』 100권, 『紀事本末』 64권, 『鳳洲綱鑑』 48권, 『元史』 50권, 『太平廣記』 40권, 『元文類』·『三國志』 도합 24권, 『草廬集』 20권, 『西陂集』 16권, 『古今人物論』 14권, 『陸宣公集』·『宗忠簡集』·『許文穆集』 도합 6권, 『高皇帝集』 5권, 『朱批詩經』·『蠶尾集』 모두 4권, 『岳武穆集』 3권, 『羅昭諫集』·『萬年曆』 모두 2권이다.</p> <p>구해 달라고 해서 응한 『調元志』, 林仲瀛에게 줄 『字彙會一』·『奎璧書經』·『左傳』·『萬年曆』, 洪致元에게 줄 『近思錄』, 黃郎에게 줄 『奎璧禮記』·『四六初徵』, 金郎에게 줄 『四書大全』, 宋景孝에게 줄 『袖珍四書六經』, 金叔昌說에게 줄 『外科啓玄』, 金致謙에게 줄 『唐詩品彙』·『萬年曆』, 金用謙에게 줄 『奎璧小學』, 族弟 李宜炳에게 줄 『奎璧四書』, 許統에게 줄 『張果星宗』, 金德裕에게 줄 『朱子語類』, 安允中에게 줄 『奎璧詩經』·『易經』, 李景瑗에게 줄 『奎璧禮記』이다.³⁶⁾</p>
----------	---

『續文獻通考』一百卷, 『圖書編』七十八卷, 『荊川稗編』六十卷, 『三才圖會』八十卷, 『通鑑直解』二十四卷, 『名山藏』四十卷, 『楚辭』八卷, 『漢魏六朝百名家集』六十卷, 『全唐詩』一百二十卷, 『唐詩正聲』六卷, 『唐詩直解』十卷, 『唐詩選』六卷, 『說唐詩』十卷, 『錢註杜詩』六卷, 『瀛奎律髓』十卷, 『宋詩鈔』三十二卷, 『元詩選』三十六卷, 『明詩綜』三十二卷, 『古文覺斯』八卷, 『司馬溫公集』二十四卷, 『周濂溪集』六卷, 『歐陽公集』十五卷, 『東坡詩集』十卷, 『秦淮海集』六卷, 『楊龜山集』九卷, 『朱韋齋集』六卷, 『張南軒集』二十卷, 『陸放翁集』六十卷, 『楊鐵厓集』四卷, 『何大復集』八卷, 『王弇州集』三十卷, 『續集』三十六卷, 『徐文長集』八卷, 『抱經齋集』六卷, 『西湖志』十二卷, 『盛京志』六卷, 『通州志』八卷, 『黃山志』七卷, 『山海經』四卷, 『四書人物考』十五卷, 『黃眉故事』十卷, 『白眉故事』六卷, 『列朝詩集小傳』十卷, 『萬寶全書』八卷, 『福壽全書』十卷, 『發微通書』十卷, 『壯元策』十卷, 『彙草辨疑』一卷, 『製錦編』二卷, 『艷異編』十二卷, 『國色天香』十卷. 此中雜書數種. 係序班輩私獻.

書畫. 米元章書一帖, 顏魯公書家廟碑一件, 徐浩書三藏和尚碑一件, 趙孟頫書張真入碑一件, 董其昌書一件, 神宗御畫一簇, 西洋國畫一簇, 織文畫一張, 菘菜畫一張, 北極寺庭碑六件. 此則擄取.”

- 36) 李宜顯, 『壬子燕行雜誌』, 壬子(英祖 8, 1732). “... 所購冊子. 『宋史』一百卷, 『紀事本末』六十四卷, 『鳳洲綱鑑』四十八卷, 『元史』五十卷, 『太平廣記』四十卷, 『元文類』·『三國志』並二十四卷, 『草廬集』二十卷, 『西陂集』十六卷, 『古今人物論』十四卷, 『陸宣公集』·『宗忠簡集』·『許文穆集』並六卷, 『高皇帝集』五卷, 『朱批詩經』·『蠶尾集』並四卷, 『岳武穆集』三卷, 『羅昭諫集』·『萬年曆』並二卷.

한편 1712년(숙종 38)의 여행기록인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에는 서적을 구매하는 보다 구체적인 방식이 적혀있다.

식사를 마친 뒤 서장관이 머무는 곳으로 갔다. 柳鳳山이 兵書 두 종류를 가져왔다. 하나는 5~6권으로 구성된 『武備志略』이었고, 다른 하나는 70편으로 구성된 『武備志』였다. 兵家의 말은 이 책에 다 수록되어 있다. 어제 아침부터 서책이 연달아 들어왔다. 그런데 책마다 제1권만 보내와 견본으로 살펴보게 했다. 사기 전에는 전질을 들여오지 않았고 들여놓은 뒤에는 반드시 사야 했다. 이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음대로 볼 수가 없어서 매우 답답했다. 예전에는 사신단이 책을 보는 것을 보초병들이 금지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책을 가슴에 숨기고 들여왔거나 전질을 들여올 때면 밤에 담 너머로 들여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서책을 마음대로 들여올 수 있었으니, 이상한 일이었다. 저녁에 역관 崔台相이 80여 종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本草綱目』만 사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보냈다.³⁷⁾

이 시기에는 서적 구매를 할 때 전책을 모두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부를 보고 구입을 결정하면 전책을 사는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7세기까지 조선사행단의 중국 내 개인 활동을 엄금하던 것이 18세기 초반부터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서적구매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서적의 계산 방식

서적의 값을 치르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의현과 같은 시기에 여행한 李器之

應求者『調元志』, 林仲蘊『字彙會一』, 『奎璧書經』『左傳』『萬年曆』, 洪致元『近思錄』, 黃郎『奎璧禮記』, 『四六初徵』, 金郎『四書大全』, 宋監役景孝『袖珍四書六經』, 金叔昌說『外科啓玄』, 金致謙『唐詩品彙』『萬年曆』, 金用謙『奎璧小學』. 族弟宜炳『奎璧四書』. 許統『張果星宗』. 金台德裕『朱子語類』. 安允中『奎璧詩經』『易經』, 李景瑗『奎璧禮記』.”

37)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卷四, 癸巳(肅宗 39, 1713) 一月. “食後. 往書狀所. 柳鳳山持來兩種兵書. 一名武備志略. 爲五六卷. 一名武備志. 爲七十篇. 兵家之言. 無所不載. 自昨朝書冊連入. 而每書各送頭一卷. 看品不買之前. 不入全帙. 入後不得不買. 是以所欲見者. 不得隨意得覽. 可鬱. 在前甲軍見書則禁. 故卷卷潛懷而來. 全帙若來. 夜從牆上入送. 而今番則書冊肆然持來. 可怪云. 夕時. 譯官崔台相入十餘種書. 其中有『本草綱目』. 餘皆還.”

(1690-1722)의 일기에 그 방식이 잘 드러나 있다. 대개 사고자 하는 서책을 서반에게 써 주면 서반이 대강 값을 매겨서 서점상에게 주고, 서점상은 여러 책의 첫째 권만 가져왔다고 한다. 책을 자세히 살펴보고 살 책을 결정하면 통역인이 서반과 가격을 흥정했는데, 5~6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값을 정할 수 있었고, 그 후에 책값을 주었고 값을 지불한 뒤에야 비로소 전질을 보내왔다고 한다.³⁸⁾ 그리고 서반에 대한 불만이 있었으며 이번 사행의 서반들이 모두 잔열(孱劣)하고 사람을 잘 속여서 값을 높게 부르는 데에만 능하고 구하는 책을 제대로 구입해 주지도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李器之가 이 때 구입한 책은 『明史本末』, 『漢書』, 『史記』, 『御製古文』, 『左傳』, 『金剛經』, 『金剛靈應錄』, 『八大家文抄』, 『十三經註疏』, 『二十一代史』, 『資治通鑑』, 『朱子綱目』, 『杜詩詳註』, 『海外記事』, 『十七代全史』, 『八編類纂』, 『朱子語類』, 『邵子全書』, 『陸放翁集』, 『歸震川集』, 『錢牧齋集』, 『明紀全載』, 『仇註杜詩』, 『中晚唐詩』, 『本草綱目』, 『遵生八牋』, 『七克』, 『天主實義』, 『挹翠軒集』, 『天主實義』, 『冊府元龜』, 『文獻通考』, 『荊川左右編』, 『西漢演義』, 『杜婕妤傳』, 『美人詩』, 『百將傳』, 『草堂詩餘』 등이었으며, 그 밖에 서화도 많았다.

1721년에 연행한 李正臣(1660-1727)이 쓴 연행록에는 책값을 부채로 치른 기록이 있다. 그는 『古篆文選』, 『唐詩畫譜』는 僧扇 20자루와 別扇 19자루로 값을 치렀고, 『五車韻瑞』는 僧頭扇 15자루와 別扇 23자루로 값을 치렀다.³⁹⁾

한편 18세기 중반이후에는 冊市에 가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대체로 북경 유리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1765년에 홍대용이 남긴

38) 李器之, 『一庵燕記』, 庚子(肅宗 46, 1720) 十月 二十三日. “... 書冊自是日始入來, 蓋書給所欲買之冊於書班, 則序班略以價給書鋪人, 但持來諸冊頭卷, 看審決買, 譯人與序班爭價, 五六日始能定價, 而後給價, 給價然後, 全秩方盡入送, 而今番序班, 皆孱劣且詐, 只能高價, 而亦不能隨求隨得. 買『十七代全史』, 張中承證輯『八編類纂』, 『朱子語類』, 『邵子全書』, 『陸放翁集』, 『歸震川集』, 『錢牧齋集』, 『明紀全載』, 『仇註杜詩』, 『中晚唐詩』, 『本草綱目』, 『遵生八牋』等書, 餘不能盡記. 崔壽溟持所刻圖書以來, 篆法皆拙惡, 故使之更刻.”

39) 李正臣, 『燕行錄』, 辛丑(景宗 1, 1721) 四月. “二十六日喫粥發行, 以『古篆文選』, 『唐詩畫譜』價僧扇二十柄, 別扇十九柄用下. 以『五車韻瑞』價僧頭扇二十三柄, 別扇二十三柄用下.”

기록은 이 시기에 서반의 감시가 그다지 큰 제약이 아닌 사실도 확인시켜 준다. 그는 “마당 동쪽에서 사람을 비집고 冊市로 들어가 보았다. 수천 질의 서적들이 순서대로 종류별로 질서정연하게 층마다 칸마다 꽉꽉 들어차 있었다. 序班 한 사람이 먼저 와 있었으니, 내가 무얼 몰래 사 가는지 살피러 온 것이었다. 나를 보고 웃기에 나도 따라 웃으며 말했다. ‘내 행장에 천금이 있어 여기 있는 천백 질 서적을 있는 대로 몰래 다 사가려고 하는데 장차 나를 어떻게 하시겠소?’ ‘나도 책을 팔기 위해 왔으니 그대의 원대로 사 가시오.’ … (중략)”⁴⁰⁾

홍대용이 구입한 서적은 그의 『담헌연기』의 기록에서 『塘報』, 『六經』, 『外省志』, 『一統志』, 『浙江省志』, 『四書』, 『五經』, 『春秋』, 『牧齋續集』, 『讀禮通攷續集』, 『康熙字典』, 『滿洲語四書』, 『蘭亭記』, 『三字經』, 『百家姓』, 『通志』, 『東醫寶鑑』, 『李一庵[李器之]의 燕行抄記』, 『四書講義』, 『水滸傳』, 『感舊集』, 『中國詩選』, 『吹幽錄』, 『說文理董』, 『金剛經』, 『楞嚴經』, 『黃庭經』, 『詩經』, 『經義考』, 『小序辨說』, 『童子禮』, 『禮節圖』, 『漢隸字源』, 『近思錄』, 『箕雅』, 『清陰先生集』, 『呂晚村文集』, 『讀禮通攷續篇』, 『喪禮續篇』, 『太白陰經』, 『望江南詞』, 『火龍秘書』, 『六壬兵詮』, 『墨緣齋藏書』, 『孫子』, 『吳子』, 『尉繚子』, 『十九史略』, 『楞嚴義疏』, 『楞嚴稿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수집된 서적의 현존자료

연행에서 이루어진 서적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실물자료에 대한 파악이 우선 필요하다. 기록에 나타나는 간행상황과 일치하거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실물자료 몇 종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행사가 구한 서적은 공식적으로 구하여 국가장서로 편입된 것과 사사로이 구입하여 개인장서로 된 것으로 구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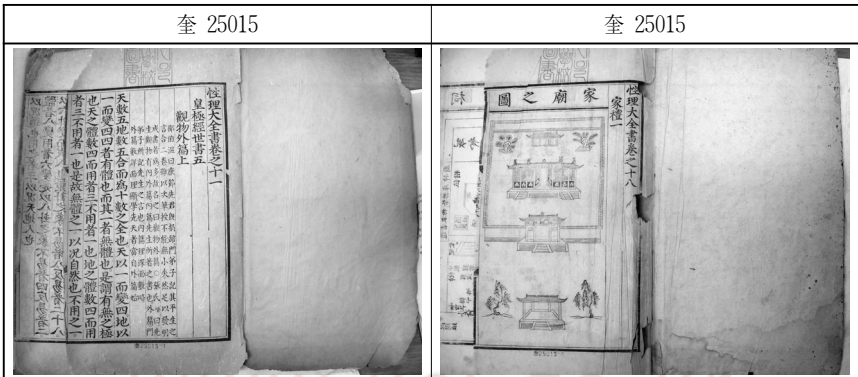
40) 洪大容, 『湛軒燕記』, 乙酉(英祖 41, 1765) 一月. “二十九日, 『隆福市』由庭東挨排而入見冊市. 充列百千帙書籍, 籤軸整秩. 序班一人已先至. 爲覘其潛買也. 見余而笑, 余亦笑曰: “我裝有千金, 此千百帙書籍, 并將潛買, 君其奈我何?” 序班笑曰: “我亦爲賣書來, 惟君所買.” … (中略)”

수 있다. 이는 개인 장서인의 사용여부로 1차적인 구분을 할 수 있다. 연행사와 관련된 자료를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서책의 실존여부 등을 파악하는 중간단계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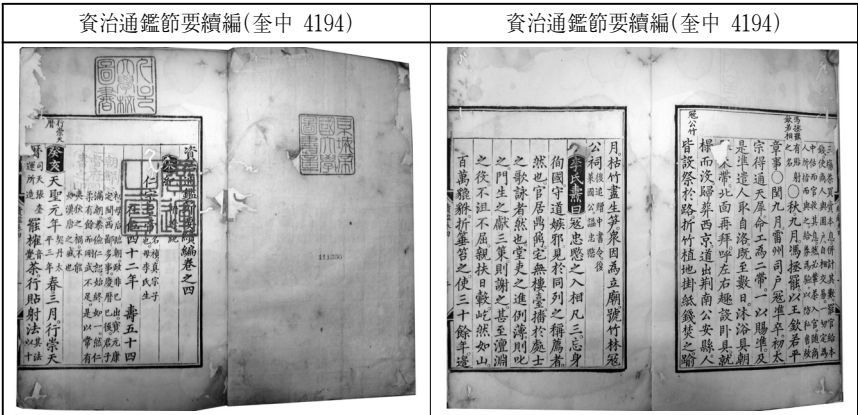
4.1 公的 蒐集의 例

공적 수집의 예로 조선전기본인 『性理大全書』(奎 25015)와 『資治通鑑節要續編』(奎中 4194), 정조 때 수집된 『古今圖書集成』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상당수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는 정책적이거나 공식적으로 으로 수집된 중국본의 유통 경로를 보여준다.

『性理大全書』는 明 胡廣(1370-1418) 등이 왕명을 받들어 宋儒의 性理學說을 집대성한 책으로 1415년(영락 13)에 완성되었다. 29卷 14冊의 零本으로 四周雙邊 半郭 27.3 x 18.0cm, 有界, 10行 22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6.5 x 22.2cm의 판식을 지니는 明初에 간행된 內府刊本이다. 소장본은 卷11-15, 18-19, 22-23, 32-37, 52-64, 70만이 남아있다. 印記로는 “서울大學校圖書”만이 날인되어 있다. 명대에 간행되었을 당시의 포배장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명초 장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동일한 간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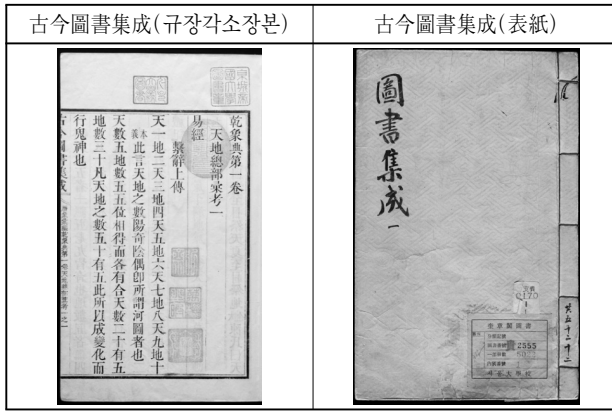


『資治通鑑節要續編』(奎中 4194)은 明 張光啓가 편찬한 資治通鑑節要續編 30卷이다. 1冊(卷4)의 零本으로 四周雙邊, 9行15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32.3 x 19.8cm의 판식을 갖는 明 正德 9年(1514) 사례감에서 간행된 간본이다. 表題는 通鑑節要이며 版心題는 通鑑이며, 欄上에 頭註가 판각되어 있다. 장서인은 “廣運之寶, 朝鮮總督府圖書之印, 京城帝國大學圖書章, 서울大學校圖書”가 날인되어 있다. 규장각 소장 『小微通鑑節要』(奎中 2849)와 동일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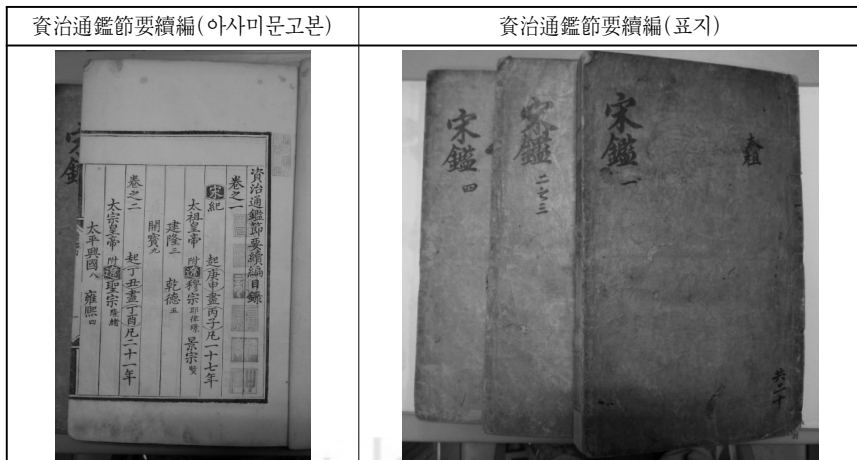
이는 앞서 언급한 조선전기에 반사받은 서책을 대부분 포함하며, 그 밖에도 康熙 52년(1713, 숙종 39)에 金昌集이 가지고 온 『全唐詩』, 『古文淵鑑』, 『佩文韻府』 등 3백여 권, 雍正 원년(1723, 경종 3)에 密昌君 李穡이 가지고 온 『周易折中』, 『朱子全書』, 雍正 7년(1729, 영조 5)에 驪川君 李增이 가지고 온 『康熙字典』, 『性理精義』, 『詩經傳說』, 『彙纂』, 『音韻闡微』, 乾隆 53년(1788, 정조 12)에 『圖書集成』 1부 5천여 권을 사 가지고 온 것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 거질의 책들로 國家藏書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 使臣의 중국서적 수집활동과 그 현존자료에 대한 시론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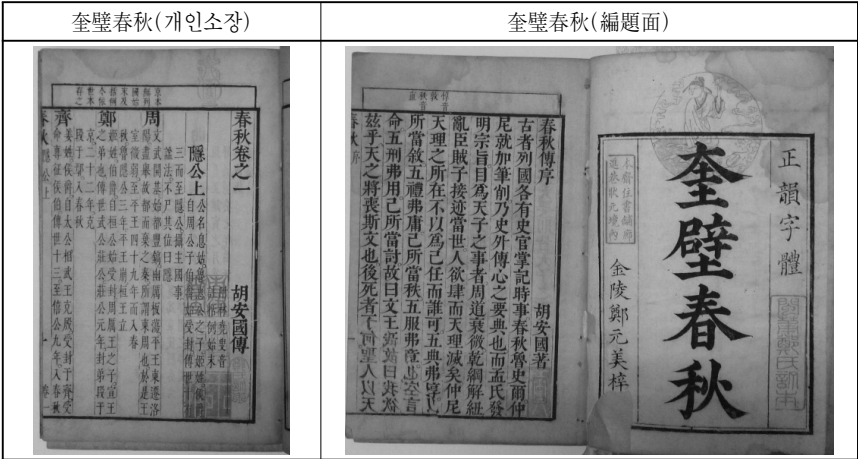


4.2 私的 蒐集의 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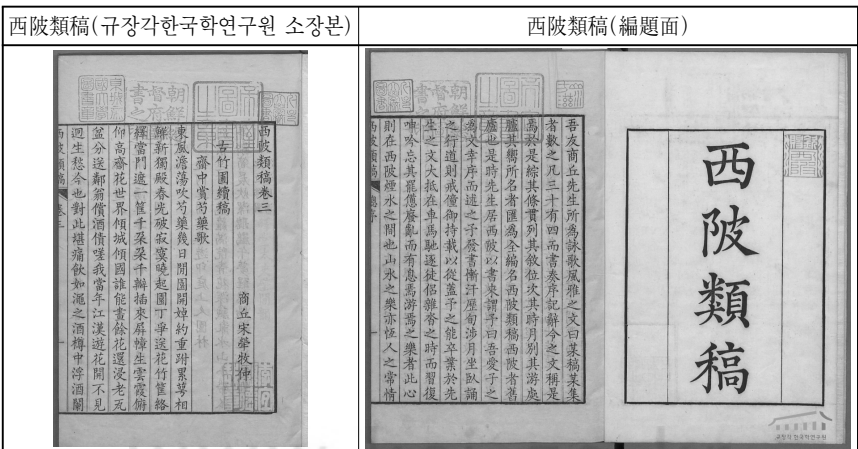
사적 수집의 예로 조선후기본인 『資治通鑑節要續編』(아사미문고본), 奎璧春秋(개인소장본), 西陂類稿(규장각소장본) 등을 들 수 있다. 『資治通鑑節要續編』은 미국 U.C. 버클리대학 아사미문고본으로 연행사로 다녀온 朴東亮(1569-1635)(1596년 8월 冬至使 正使)의 개인 소장본이며, 규장각 소장본과 동일판본이다.



『奎璧春秋』는 1697년 세자 책봉에 대한 奏請使의 書狀官으로 다녀온 宋相琦(1657-1723)의 소장본이다.



『西陂類稿』는 청나라 宋葦(1634-1713)의 詩, 詞, 名體文, 奏疏 등을 모아놓은 別集이다. 1720년과 1732년에 연행한 李宜顯의 소장본이며 그의 1732년 『壬子燕行雜識』에 이 책을 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5. 結 言

이 연구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지닌 연행사의 서적을 통하여 동아시아 서적 교류의 일면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연행기록에 나타난 서적 求得方式을 우선 파악하여 그 의미를 알아보았다. 연행사가 서적을 구득하고 전과한 중국서적의 전체적인 흐름은 연행연구를 출판 독서문화사적으로 접근하는 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행문화의 출판문화적 접근에 필요한 사항으로 일부분이지만 실물자료로 남은 서적에 대하여 현전하는 자료를 몇 종 살펴보았다. 출판문화사와 서적교류사의 연구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전체에서 사상적인 영향력이 큰 영역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국가전체의 사상적인 수요가 무엇인지 등 사회사, 사상사 전체 차원에서 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행사의 서적은 그 경향을 분석하는 대상으로서 이러한 연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재료임에 틀림이 없어 보인다.

서적의 구입과 수증은 조선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반사를 요청하여 중국 쪽으로부터의 반사받거나 연행사행을 통해 중국 현지에서 직접 구입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대체적인 상황은 16세기 후반부터 연행사에 의한 대규모 서적수집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서적생산과 공급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와도 연결되어 있다. 연행사의 서적구매 방식을 통해서 살펴본 바로는 17세기까지 조선사행단의 중국 내 개인 활동을 엄금하던 것이 18세기 초반부터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서적구매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경 琉璃廠 서적시장이 번성한 乾隆年間(1735-1796) 이후보다 자유로운 서적 구매활동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수많은 종류의 중국서적이 조선에 유입되었고 연행사는 지식의 전달자 또는 유포자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병화와 격동의 시간을 겪으면서 수입된 서적들은 갖가지 사연을 남기로 사라져가고 그나마 온전하게 남아서 그대로 전해지는 자료는 매우 드물게 되었다. 만약 기록에 남아있는 서책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면 희귀서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성을 지니는 자료로서 새로운 의미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러한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중국고서로서 연행사가 구입하거나 수증한 자료로 볼 수 있는 책을 몇 가지 종류만 제시해 보았다. 조선인 연행사가 소장하거나 구했음으로 판단되는 중국고서는 각 소장처마다 수록된 목록체계나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아직까지 이 분야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목록작성 방향에는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중국본에 대하여 특별한 항목을 두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원전자료]

- 『高麗史』. 국사편찬위원회 웹.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웹.
姜紹書. 『韻石齋筆談』 卷上.
金景善. 『燕轅直指』.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卷四, 癸巳(肅宗 39, 1713).
俞晚柱. 『欽英』 (1786.1.16).
李器之. 『一庵燕記』, 庚子(肅宗 46, 1720).
李宜顯. 『庚子燕行雜誌』 下, 庚子(肅宗 46, 1720),
李宜顯. 『壬子燕行雜誌』, 壬子(英祖 8, 1732).
李正臣. 『燕行錄』, 辛丑(景宗 1, 1721).
洪大容. 『湛軒燕記』, 乙酉(英祖 41, 1765).

[논문 및 저서]

- 김영진. “조선후기 중국 사행과 서책 문화.”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문화지형도』.
한양대학교출판부, 2006.

- 김지연. “『欽英』에 나타난 俞晚柱의 독서생활과 서지학적 성과.”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藤塚鄰 著, 朴熙英 譯. 『秋史 金正喜 또다른 얼굴』. 아카데미하우스, 1994.
- 박현규. “清 翁方綱 所藏 蘇軾 『天際烏雲帖』과 朝鮮 申緯의 結緣.” 『韓中人文學
研究』 12卷(2004).
- 부유섭. “燕行錄을 통해본 康雍 年間 中國書籍 流入에 대하여.” 『漢文學報』 22
집(2010. 6). 267-306.
- 신익철 등 편. 『18世紀 燕行錄 記事集成 - 書籍 書畫篇 -』. 韓國學中央研究院
出版部, 2014.
- 신익철. “燕行錄을 통해본 18세기 전반 韓中 書籍交流의 양상.” 『泰東古典研究』
25(2009).
- 옥영정. 『원간본의 조선간행과 유통』. 東亞世亞出版文化研究 國際學術會議
(2009.10).
- 衣若芬. “敬觀眞賞: 翁方綱舊藏本 《施顧註東坡詩》 研究.” 『清華中文學報』 第
11期(2014. 6). 57-102.
- 임기중 편. 『연행록전집』 100권. 2002.
- 임기중 편. 『연행록해제』 1~2집. 2004.
- 정민. “연행기록을 통해본 18-19세기 북경 유리창 서점가.” 『동아시아문화연구』
50집(2011. 11). 83-124.

[웹사이트]

- 국사편찬위원회. <<http://history.go.kr>>.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 <<http://e-kyujanggak.snu.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전자도서관. <<http://lib.aks.ac.kr>>.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korcis>>.
-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